

# '전북방문의 해' 순창관광 뜬다

### 군, 자생식물원 등 관광 인프라 대폭강화·투어패스 활성화로 관광객 유치

순창군이 올해 전북방문의 해를 맞아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대해 전북도관광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군은 올해 강천산과 섬진강을 축으로 한 체류형 관광시스템을 완성하고 힐링순창을 알리기 위한 관광자원을 대폭확대 했다.

우선 섬진강에는 자생식물원이 본격 선보인다. 자생식물원은 동계면 어치리 용골산 일원 3.0ha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고유의 향토 자생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15억을 투자해 조성하고 있으며 원추리, 나리, 할미꽃 등 자생 초화류 39종 19만 7천본을 식재해 자생식물원의 모습을 갖췄다.

또 관광객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야생화 군락지 3개소도 집중 개발했

다. 올해는 배롱나무 등 관목류를 식재하고 꽃무릇 상사화 등이 피는 숲속 탐방로를 설치해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힐링 쉼터가 본격 모습을 드러낸다.

마실휴양숙박단지에는 한글 방갈로 등이 설치됐고 섬진강 향가오토캠핑장에서는 야간 페스티벌도 개최하는 등 올해 순창의 섬진강 관광자원이 대폭 강화된다.

매년 120만 관광객이 찾는 강천산도 새롭게 단장한다. 이미 강천산 음용은 천수 자리에서 강천산까지 산과 호수의 풍광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는 강천산 도보길이 완성돼 관광객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 12억 7천만원에 투자해 탐방시설 확충, 노후시설 및 위험시설 정비, 계곡탐방로 준설, 목교설치 등 12개 사업을 상반기에 완료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강천산의 모습을 선보일 계획

이다.

이외에도 순창군에는 올해 의농업체협관, 식문화 실습관, 3가지 테마 치유농장 등 힐링 관광자원이 본격 운영될 계획이다.

늘어난 인프라와 함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도 본격 진행된다. 먼저 전라북도가 아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투어패스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도 공을 들인다. 전북투어패스와 연계해 투어패스카드 소지자 무료이용 관광지를 강천산에서 건강장사체협관, 천재의공간영화관 등으로 확대하고 할인 혜택을 주는 식당과 모델 특산물 판매처를 50여개소로 확대했다.

또 코레일마케팅관계자, 여행사 임원, 블로거 기자 등을 대상으로 연 15회 캠퍼어도 진행해 전북관광 일반지 순창투어를 알리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고창소방서 "건조한 날씨 산불 발생 주의"

###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 총1만4024건·사상자는 사망 59명 등

고창소방서(서장 김봉춘)는 건조한 날씨에 산불 등 임야화재 발생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5일 동안 화재출동건수가 7건이며, 이는 모두 논·밭두렁(잡풀과 영농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 출동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요일 하루에만 5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국민안전처에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발생한 임야화재는 총1만4024건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사망 59명, 부상 280명 등 33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3월에 가장 많은 3871건의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4월 2085건, 2월 202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 고령자는 임야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90%를 차지한 점을 볼 때 혼자서 진화하기 보다는 우선 불길을 벗어나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으로 피하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불철 화재의 대부분은 논·밭두렁 태우기, 잡풀과 영농쓰레기 소각 등의 개인의 부주의에 따른 것으로 고창소방서에서는 아산 인근에서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인접한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확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춘 서장은 대부분의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고며 논·밭두렁 등을 태우다 발생한 화재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특별교부세 60억원 확보 나서

남원시는 2017년도 특별교부세 대상 사업 9건(예산 75억 5천만원)을 발굴하고 60억원 확보하기로 했다. 남원시는 예산확보를 위해 정치권, 남공회 등과 전략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은 행정자치부 소관사업에 4건 35억원, 국민안전처 소관사업 5건에 40억5천만원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10억원, 어린이청소년도서관건립 10억원, 덕과 사울~신양도로 개선공사 10억원(이상 행정자치부 소관사업), 산

동부절 사정교정비 7억5천만원, 주생 내용마을 교량정비에 8억, 주천 회덕마을 세월교정비에 10억, 보철 진기앞 마을 세천정비에 9억, 주천 내용마을 뒷천정비 6억원(이상 국민안전처 소관 사업)이다.

남원시는 또, 예산 신속집행으로 덕음산 철쭉공원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뒀다.

덕음산은 평소 남원시민의 왕래가 잦아 애정이 깊은 대표적인 산으로 지난 2000년 산불로 훼손돼 정비와 보수가 시급한 지역이다.

남원시는 이에 행정자치부와 국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설득해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 사업 특별교부세를 5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다.

남원시는 덕음산 산책로에 철쭉을 보강 식재하고, 산책코스를 확대 조성하여 시민건강 증대와 관광객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공산림가꾸기 작업단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지자체체의 지방재정 여건변동과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보전하는 재원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봉사활동 벌여

###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일대·독거노인가구 대상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다양한 사회단체의 참여가 더해져 지역 상생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회장 박순남)는 동네 복지허브화 일환인 '우리집이 달라졌어요' 봉사활동을 관촌면 용산리 일대에서 개최했다.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관촌면사무소, 임실군자원봉사센터, 관촌면자원봉사센터, 자율방범대 등 지역 유관·사회 단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

다양한 단체에서 모인 30여명의 자원봉사자는 주택내외 정비, 방치 폐기물 처리를 비롯해 형광등 교체, 이불 및 의류 세탁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행복보장협의체, 좋은이웃들, 북부권노인복지관, 임실군푸드

뱅크는 생활용품, 이불, 식품 등 다양한 생활용품을 기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뜻을 함께 했다.

지난해 5월 조직된 주민 네트워크 조직 관촌면행복보장협의체는 복지 문제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 발굴을 마친후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 참여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올 하반기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일곱색깔 무지개 소원을 말해봐' 사업을 시행, 보편적인 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을 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순남 회장은 "내 고장 내 이웃의 복지 문제를 자발적인 지역민의 참여로 해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앞장설 것"이라며 "앞으로 관촌면 맞춤형복지팀과 함께 사각지대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식목일 맞아 나무심기 행사 열어

임실군은 제72회 식목일을 맞아 산림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기 위해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개최했다.

성수면 양지리 산 28번지 일대에서 심민 군수, 군청 직원, 산림조합 등 관계자 130여명이 참여해 1ha 면적에 팜백나무 1천5백주를 식재했다.

1부 기념식은 개회를 시작으로 나무심기요령, 시범 등의 교육이 진행됐으며 이어 2부는 조를 나눠 본격적인 나무심기 작업을 실시했다.

군은 아름다운 산림자원 조성과 소독정출을 위해 올해 15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329ha 면적, 69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있다.

특히 신덕면 주민들이 지난 2013년부터 조성한 율나무 단지가 현재

76ha로 크게 늘었으며 올해 30ha 면적을 추가 조성하면 전국 최대 규모의 율나무단지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귀농·귀촌인 일자리 제공은 물론 열악한 산촌의 소득증대 모델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산림은 목재 공급의 역할을 뛰어넘어 6차 산업이라는 새로운 복지자원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며 "인간의 삶을 치유하고 교육하며 소득증대 모델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건조한 시기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계절인 만큼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소식통

## 고창군의회, 임시회 개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최근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각종 민생현안 조례들을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발의 조례안 3건, 고창군수가 제출한 5건의 의안 등 총8건의 의안을 심사하였다.

의안 처리결과로는 ▲고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등의안 ▲고창군 동리시베아 민간위탁 등의안 ▲고창군 가족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마을공동체 운영관리 조례안 ▲고창군 풍천정어 웰빙식품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 농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

경칩이 지난 요즘 농촌에서는 벼 종자 및 농자재 준비와 밭 정리작업에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남원시에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각종 농작업과 농기계 도로 운행에 따른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주행이 잦은 경운기, 트랙터 등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안전등화장치 부착 작업에 발 벗고 나섰다.

농촌진흥청 통계에 따르면 농번기 농기계 사용이 가장 많은 봄, 가을철에 57% 이상 발생되고 있으며, 농기계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자동차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영농철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가들의 교통사고 예방 의식이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순창청소년문화의집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순창청소년문화의집은 오는 24일까지 10일간 문화의집 상반기 문화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청소년문화 프로그램은 탁구, 풋볼, K-POP 댄스 등 7강좌, 성인문화 프로그램에는 해피로빅, 부모성품화학교, 우쿠렐레 등 4개 강좌가 진행된다.

4월 5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프로그램 별로 주 1~2회 진행된다.

참가대상은 순창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소장에 참가비가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전화 063-652-2301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